

경상북도 서부에 위치한 김천(金泉)은 예로부터 역(驛)을 둔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이후 경부선 철도와 경부 고속도로의 건설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문화의 고장 김천은 소백산맥 자락인 대덕산과 황악산에서 흘러내린 풍부한 물과 바람이 적당하여 일찍이 포도와 자두, 참외와 같은 원예시설농업이 발달했다. 특히 포도와 자두는 그 생산량에 있어 전국대비 13%와 30%를 각각 차지하는 김천의 대표적인 농특산물로서 그 명성이 잘 알려져 있다.

글 | 강 옥 자유기고가

사진 | 김천시청 홈페이지

추풍령 아래 첫 고을

김천 (金泉)

Gimcheon

김천시가지 전경



김천시는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금릉군과 김천시가 통합되었는데 금릉(金陵)이라는 지명은 중국 동진의 수도로서 경관이 빼어났다고 알려진 금릉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지며, 김천(金泉)은 옛날에 이 고장에 금이 나는 샘이 있어 김천이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샘에서 나는 금은 나라에서 모두 가져가버려 부역이 두려운 이곳 사람들이 샘을 매워 버렸다고 한다.

이처럼 아름다운 전설과 자연환경, 역사가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 문화의 고장 김천은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한겨울에도 눈 구경을 하기 힘든 영남의 남부 지방 사람들이 겨울에 서울로 여행하다가 먼 산에 허열게 눈이 덮여 사뭇 경치가 달라지는 곳에 이르면 김천시와 금릉군의 부근에 다다른 것으로 짐작해도 좋다. 이곳은 겨울에 눈이 흔한 고장이다.

김천시와 금릉군의 날씨에는 이 지방의 북쪽에 얽은 소백산맥이 큰 작용을 한다. 이를테면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이 산맥 때문에 강제로 위로 올라가 차고 건조한 바람이 되며, 여름에는 남동풍이 이 산맥에서 북서열을 받아 더운 바람이 된다. 따라서 몸에 느끼는



직지사

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겨울에는 더 낮고 여름에는 더 높다. 그래서 겨울에는 동실거리는 조각구름들이 산맥을 넘어 눈발이 되어 흩날리고, 여름에는 번개 구름이 솟아 들판의 곳곳에 자주 벼락을 치는 것도 이 고장 날씨의 특징에 든다.

신라의 불교 전래를 논할 때 마다 꼭 등장하는 곳이 직지사다. 대항면 운수리에 있는 직지사(直指寺)는 황학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황학산은 소백산맥 준령의 남쪽 자락에 옛날부터 학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여 그렇게 불렸다.

직지사는 절 이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 온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신라에 처음 불교를 전래한 아도화상에 관한 것이다. 구미 모례장자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아도화상이 구미 도리사를 지었다. 그런데 도리사의 망대에서 보면 직지사 쪽이 한눈에 보인다. 그래서 아도화상이 손가락으로 직지사를 가리키며 큰 절이 설 자리라 하여 절 이름이 직지사가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설로는 고려 초에 능여가 절을 중창할 때 자를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직접 절터를 측량했다는 데서 절 이름이 유래했다는 것이다. 한편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도를 깨치고 부처가 된다'(直指人心 見性成佛)는 불교의 가르침에서 직지사란 이름이 생겼다는 견해도 있다.

직지사는 고구려 승려 아도화상이 418년에 세웠다고 전해지는 대형 사찰이다. 직지사에는 1920년대 일



용소폭포

제가 파헤치기 전까지 정종의 어태(御胎?태반)가 안치되어 있었다. 지금 대웅전 뒤 태봉(胎冢)엔 소나무가 울창하고 완만한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다.

김천시에서 거창으로 가는 국도를 따라 남서쪽으로 22km쯤 가서 동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아흔아홉 고개라고 불리는 험한 고개가 있고, 그 고개를 넘으면 김천시에서 가장 외진 곳인 증산면 수도리에 이른다. 수도산의 산세가 마음껏 펼친 곳에 앉은 이 마을에는 명주실 한 꾸러기가 모두 풀려도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깊은 못인 용소가 있고, 859년에 신라의 도선 국사가 창건한 청암사(靑巖寺)가 있다. 이 절은 비구니 스님 150여명이 수행하고 있는 아늑한 곳이다. 또한 인현 왕후가 머물며 애타계 복위를 빌었다는 사찰로도 알려졌다.

그리고 수도산 기슭에는 암자라고 하기에 규모가 큰 수도암이 자리 잡고 있다. 청암사와 같은 해에 창건된 이 암자는 그 건물이 1894년의 동학혁명 때에 모두 불타 버려 오늘날의 것은 그 뒤에 다시 지은 것이지만 옛 모습대로 남아 있다. 베를 짜는 처녀가 탑신에 새겨진 3층 석탑 두 채와, 도선 국사가 만들었다는 불상과 비로자나불 돌 좌상 따위 조각품은 신라 때에 만든 것으로서 그 공예가 뛰어나 각각 보물 296호와 297호와 보물 307호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비로자나불 돌 좌상에는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이 얹혀 있다. 경주 석굴암 본존불보다 키가 80cm쯤 낮은 이 부처는 경상남도 거창군의 한 마을에서 조각되어 그 마을의 이름이 '불석동'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부처를 수도암까지 옮겨오느라 애를 먹고 있을 때에 늙은 중 하나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 중은 그 무거운 부처를 거뜬히 등에 업고 수도암 근처에 다다랐는데 안타깝게도 칠평굴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그러자 그 중은 이 산신령을 크게 꾸짖고 사라졌으며 그 뒤로는 수도암 언저리에는 칩이 자라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 전설에서처럼 오늘날에도 이 암자 근처에서는 칩을 찾기 어렵다.

김천은 경기도 안성처럼 유기로 이름났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날까지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김천 유기를 대표할만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징과 팽과리이다. 징과 팽과리는 질 좋은 놋쇠를 두들겨서 만드는 방짜이다. 징을 만들 적에는 먼저 구리와 상납을 1대 4의 비율로 넣고 녹여 합금을 하여 지름이 20cm 이고 두께가 3cm인 둥근 덩어리 곧 바디기를 만들어 그것을 불이 활하게 핀 화덕 속에 넣고 달군다. 바디기가 불속에서 처음 얼마 동안은 잿빛이었다가 점차로 붉은빛을 띠기 시작하여 마침내 분홍빛이 되면 꺼내서 메질을 한다. 그런데 바디기가 분홍빛으로 달궈지지 않았을 적에 메질을 하면 단박에 산산 조각이 나므로 메질은 반드시 바디기의 빛깔을 잘 가늠할 수 있는 밤중부터 이튿날 해뜨기 전까지 해야 한다.

바디기를 칠적에는 바디기당이가 잘 달궈진 바디기를 집게로 집어 주면 그것을 대정이 발아메질을 잘할 수 있도록 쥐고 있고, 앞메꾼과 전메꾼과 섰메꾼이 돌아가면서 쇠메로 친다. 그러다가 바디기가 식으면 다시 화덕으로 들어가는데 화덕에는 불만 전문으로 보는 이가 하나 딸린다. 바디기가 다시 달궈지면 먼저와 같은 방법으로 치고 또 치는데 이런 메질을 가리켜 도듬질이라고 한다. 도듬질로 얼마만큼 늘어난 바디기를 초바디기라고 이르며 초바디기는 석장을 겹쳐서 친다.

이렇게 쳐서 초바디기가 징 바닥만큼 늘어나면 가장 자리를 두들겨서 오긋하게 오그린다. 오그린 것을 이 가리라고 이것을 다시 달궈서 그 바닥을 치는 싸개질을 한 다음에 담금질을 하여 놋쇠의 강도를 높인다. 이렇게 해 놓으면 걸보기에 거의 징 모양을 갖추게 된다. 그때부터 징이 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징 바닥을 작은 망치로 두드려 '쌀을 편다'. 곧 징 바닥의 두께가 골라지도록 골고루 펴는 것이다. 쌀이 잘 펴진 다음에는 징에 소리를 불어넣는 작업인 '울음 잡기'를 한다.

김천시 구성면 광명동에 있는 성산 여씨의 동족 마을은 이 지방의 또 다른 역사를 말해 준다. 임진왜란



때에 충청남도 금산 지방에서 3천명쯤의 의병을 이끌고 성주와 거창까지 오르내리며 왜적을 무찌른 의병장 여대로의 고향이 이곳이다. 또 임진왜란이 끝나고 250년쯤이 지난 뒤에 지금의 광명동에서 1km쯤 떨어진 금평동의 여씨 집안에서는 한말의 항일의사 여중룡이 태어났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뒤에 일본 공관을 폭파하려다 잡혀 모진 고문을 받고 풀려난 여중룡은 허위, 이강년, 최익현과 더불어 서울로 진격하기로 손가락을 잘라 맹세했다. 그러나 힘든 일에 시달린 데에다 고문으로 얻은 고질병이 재발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빨리 죽어 귀신이 되어 원수 일본을 기어코 망치리라"는 유언을 남기고 1913년 12월에 눈을 감았다.

이렇듯이 김천시는 항일 의병장과 의사를 많이 배출한 충절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여씨 집안은 한창 때는 광명동에만 200가구쯤이 모여 살았으나 1936년의 이른바 병자 대수해를 만나 마을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가구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편으로 봉산면에는 조선 중종 12년에 두보의 시를 우리말로 번역하여「두시언해」를 펴낸 매계 조위의 생가가 있다.

포도의 명산지 김천에서는 포도 수확기를 맞아 갖가지 행사가 열린다. 대항면 대룡리 '반곡 포도마을'은 도시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눈높이 따라 줄줄이 매달린 포도가 탐스럽기 그지없다. 까만 포도가 탱탱하게 가지에 붙어서 상큼한 냄새를 풍겨온다. 포도가 한창 여무는 8월 20일경, 반곡 포도마을서는 '새콤달콤 포도 따기' 체험 행사가 열린다. 그 밖에 김천의 먹거리로 '지레 흑돼지'가 유명하다.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